

People & Life

2대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광양 박종군 장도장

“세계에 한국 장도의 예술 알릴 것”

“장도장(粧刀匠)으로 사는 것이 숙명인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60호로 지정된 박종군(50) 광양장도박물관 전수관 관장, 박 관장은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심사 등을 통과,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부친 박용기(81)옹 이후 2대에 걸쳐 장도장의 맥을 잇게 됐다. 장도장은 절개를 상징하는 칼인 장도를 전문 제작하는 장인이다.

박 관장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

박 관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부에 들어가 예술에 대한 기초를 닦기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친의 뒤를 잇고 싶었으나 대학 4학

년이 돼서야 기술과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게 시작한 만큼 부친의 위업을 그대로 전수받기 위해 장도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새로운 장도장으로써 작품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도장으로서 박 관장은 박물관 초청과 해외 전시회 등 장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 관심이 높지만 접할 기회가 적은 소외된 지역과 사람들에게도 장도 박물관 관람과 교육 등을 통해 장도를 알리겠다는 포부가 가득하다.

박 관장은 “지난 80년대 아버지가 전국 대도시를 돌며 개인전시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 1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60호로 지정된 박종군 장도장(粧刀匠·왼쪽)이 장도장 명예보유자이자 부친인 박용기옹의 장도 제작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뛰어넘어 전 세계에 장도의 예술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자가 2대에 걸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지만 아직까지 장인의 길은 험난하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전승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무형문화재 지정 의미에 비춰 장도의 현실적인 작품 판로 확보 등은 해결되기 힘든 문제

이기 때문이다.

박 관장은 “장도장은 예술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데다 현재로서는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국립공원의 야생화

꽃 중에 작은 꽃 ‘얇은뽕이꽃’



<168> 고갈제비꽃

고갈제비꽃은 제비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산지의 나무 그늘이나 양지에서 자란다. 꽃이 필 때 잎의 모양이 고갈처럼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고갈제비꽃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우리에게 친숙한 제비꽃은 어린 시절에 한번은 읊조려 봤을 법한 동요 ‘보라빛 고운 빛 우리집 문패꽃 꽃 중에 ‘작은 꽃 얇은뽕이랍니다’에 등장하는 ‘얇은뽕이꽃’외에도 ‘오랑캐꽃’, ‘씨름꽃’, ‘병아리꽃’, ‘외나물’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린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KBC 광주방송 신임 사장에 정일윤씨



KBC 광주방송은 2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사장에 정일윤(57) 전 진주MBC 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정일윤 사장은 신안 출생으로 목포고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MBC 사회부장·보도제작국장·보도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방송인이다. 특히 진주MBC 사장 재직시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둬 방송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았다.

정 사장과 함께 선임된 송종민 전무이사는 호반건설 상무와 (주)호반 대표를 지냈다.

KBC 광주방송은 23일 오전 대표이사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정영팔 광주·전남기자협회장 당선



제38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에 정영팔(44) 광주MBC 차장이 당선됐다.

정 신임 회장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KT 전남본부에서 열린 찬반투표에서 대의원 102명(총 109명) 중 찬성 99표를 얻었다. 정 회장은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 기자협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목포해경 박정민 513함장 ‘베스트 캡틴’



목포해경 소속 박정민 513함 함장이 올해 최고의 경비함정 지휘관에게 부여되는 ‘베스트 캡틴’(The Best Captain)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경찰청은 ‘베스트 캡틴’에 박정민 경감(목포해경)을, ‘최우수 정장’에 서경훈 경위(통영해경)를 각각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호 ‘베스트 캡틴’의 영예를 안은 박 경감은 올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시 지파정 1위, 해경청 2위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67명) 검거와 사고선박 20척(108명)을 구조·예인했다.

박 함장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버리고 상호 신뢰와 열정을 다하는 분위기가 조성을 위해 노력해 이 같은 영예를 안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전남도청 고성혁 과장 두번째 시집 ‘귀향’ 출간



50대 현직 공무원이 수년간에 걸쳐 틈틈이 써온 시 99편을 한데 엮어 두번째 시집을 펴냈다.

‘시(詩) 쓰는 공무원’으로 유명한 전남도청 인력관리과 고성혁(55)과장은 10여년간 틈나는 대로 쓴 자작시 99편을 모아 최근 ‘귀향’(모아드림 刊)이라는 두번째 시집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시집에서도 특유의 사투리가 섞인 구수한 목소리로 애절한 삶의 면면을 그려냈다. ‘어머니의 꿈’, ‘아내에게’, ‘내아들 한세아’

등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통렬한 사랑을 엮어냈다. ‘금남로여, 안녕하’라는 작품에선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목포로 이전할 즈음, 5월 광주의 파물음을 함께했던 도청 정문과 총알 자국이 수북했던 회의실, 늙은 은행나무와의 이별의 아픔을 진한 감성으로 토해냈다.

그는 1997년 계간 ‘시와 산문’을 통해 등단한후 1998년 첫 시집 ‘낯은 시네마 필름처럼’과 2004년 첫 산문집 ‘그저 자는 듯 죽게 해 줘서’를 냈다.

/정월수기자 bungy@kwangju.co.kr

본보 주최 ‘광주 문화도시 사랑 신문만들기’ 시상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광주 문화도시 사랑 신문만들기 대회’ 시상식이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사진 왼쪽부터 전시운(서강고·신문 스크랩 장려상)군, 김선민(대광여고·〃우수상), 박하은(동신여중·신문만들기 우수상), 성명은(대광여고·신문스크랩 장려상), 서영은(조대여고·신문만들기 최우수상)양, 유재철 광주일보 사장, 홍유빈(봉황중·신문만들기 장려상), 윤인빈(봉황중·〃 최우수상), 장만아(봉황중·신문스크랩 장려상)양, 노현진(송덕고·〃 우수상·사진은 어머니 김정순씨)군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검찰청 유공 경찰공무원들에 표창장



광주지방검찰청(검시장 주철현)은 22일 오후 3시 광주지검 청사에서 유공 경찰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광주지검 제공>

광주은행 산수동지점 동짓죽 나누기



광주은행 산수동지점(지점장 나상원)은 22일 산수동지점 앞에서 원효사와 함께 하는 ‘사랑의 동짓죽 나누기 행사’를 열어 지역 노인 및 불우이웃 300여명에게훈한 정을 나눴다.

<광주은행 제공>

이대수 코레일 광주본부장 취임



광주와 전남서부지역의 철도운역을 담당하는 코레일 광주본부 제3대 사령탑으로 이대수(56) 본부장이 22일 취임했다.

이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365일 안전확보를 광주본부 전직원이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며 “2014년 호남고속철 개통에 대비해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GLORY 운동 활성화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철도를 만들겠다”며 “에항 남도의 고광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철도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승화시켜 지역사회와 철도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철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대수 본부장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코레일 비서실장, 인제개발원장 등을 거쳐 광주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조선대병원 장기기증 공로 장관 표창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민영돈·사진)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교육장에서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000년 뇌사판정 대상자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뇌사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 및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한국장기기증원과緊密 협약을 체결했

으며,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와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 ◆조선대학교
 - ▲기획조정실장 전의천(경상대학 무역학과) ▲교무처장 임흥수(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 ▲중앙도서관 류찬수(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평생교육원장 최영복(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 ◆KBC 광주방송
 - <신규선임> ▲사장 정일윤 ▲전무 송종민
- ◆호반건설
 - <승진> ▲전무 김명열(건설사업본부장) 박철희(경영관리본부장)
 - ▲상무 심오섭 ▲이사 조철화·손종달·김동남·정원국·정재은
 - ◆스카이밸리C.C
 - <신규선임> ▲사장 이정호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이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장재준·강성애씨 장남 무선군 최광일·양순석씨 차녀 유경양=24일(토) 오전 11시 50분 상무리치킨 벤선해당을 3층 그랜드볼룸.

▲고영달(광주아울렛 대표)·이형남씨 차남 성민(FILA Korea)군 임방성(여수항 도선사)·이주영씨 차녀 민하(법무법인 세종)양=25일(일) 낮 12시 30분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중친회

▲경주정씨 목포지구(회장 정학균) 12월 월례회=23일(금) 오후 6시 하당 그랑베아포(철따라 맛집)

061-287-7005.

▲하동정씨 경렬공파 중친 임시

총회=1월 2일(월) 오전 11시 종회 사무실(서구 화정동 767-45)

동창·동문회

▲광주상고 25회·광주여상 13회 송년회=28일(수) 오후 6시 30분 CMB광주방송 2층 컨벤션홀.

향우회

▲재광 보성군 향우회(회장 박오주)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27일(화) 그랑시아 웨딩타워 5층 062-515-1500.

알림

▲신용회복위원회=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하여 채

무종합상담,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등을 지원.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금남로5가 금호중 금빌딩 6층·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새대안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 대표전화 개통=노인 취업상담과 알선을 위한 대표 번호(1577-6065) 개통. 지역 취업지원센터장을 통한 취업 상담.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와 ‘#’버튼을 통해 광주지역연합회 취업지원센터로 연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긴급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생필품), 친자확인검사지원 및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모집

▲용마 축구클럽 회원=건강한 생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건강수지침 회원=매주 목요일 오후 2~3시20분까지.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국비지

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부음

▲김재식씨 별세 대상·대현·세현씨 부친상=발인 2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하용선씨 별세 상호·재호·현옥씨 부친상=발인 2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복수씨 상존·상호·상희·윤희씨 부친상=발인 2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문규조씨 별세 방진(광주지방 법원 공보관)·대석·영상·연화씨 부친상=발인 24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조태만씨 별세 수일·영숙·영남·영래·인숙씨 부친상=발인 23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문대석 님(남/91세) 子/子婦: 문형일 / 이명희, 형태 / 한경열 형수 / 윤향숙, 형구 / 노정만 女/婦: 문형순 / 김용택, 형진 / 김 중 • 호실402호 • 발인: 12월24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3	故조정순 님(여/67세) 子: 정대인, 외진 女/婦: 정현주 / 김경신 夫: 정 영 경 • 호실101호 • 발인: 12월24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
故홍두열 님(남/85세) 子/子婦: 홍문우 / 임현순 孫: 임민석, 창필 • 호실102호 • 발인: 12월24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6	故한두례 님(여/58세) 夫: 이 영 석 子: 이상석, 창순 • 호실402호 • 발인: 12월23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14
故지규현 님(남/42세) 兄弟지규현, 규운 • 임시 • 발인: 12월23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000	

마 음까 지 빈 안 한
추 금 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진순 님(여/87세) 子/子婦: 백용섭 / 이장자, 형백 / 김오성, 형기 / 장해정 女/婦: 백순복 / 식근중 • 11분향소 • 발인: 12월23일 • 장지: 망월동 묘역 • 연락처: 250-4411	故 김명환 님(남/88세) 子/子婦: 김은중 / 봉경자, 태영 / 김광선 女/婦: 김애자 / 채영남, 기자 / 이호근, 경순 / 윤성철, 형태 / 이명택, 형순 / 조규환 • 9분향소 • 발인: 12월23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9
故 김만옥 님(남/87세) 子: 김인식 女/婦: 김은숙 / 이문수 • 6분향소 • 발인: 12월23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6	故 김영택 님(남/81세) 子: 김용철 女/婦: 김은자 / 장영자, 은숙 / 이연진, 형자 / 김학주, 은숙 / 고지석, 진 / 송광영 • 5분향소 • 발인: 12월23일 • 장지: 장성상계 • 연락처: 250-4405
故 유영례 님(여) 子/子婦: 하영진 / 이지현, 형목 / 김소영 女/婦: 하수경 / 이문수 • 9분향소 • 발인: 12월23일 • 장지: 국성군 묘역 • 연락처: 250-4403	故 김영옥 님(남/81세) 子/子婦: 김성현 / 서미영 女/婦: 김미경 / 백한기, 미자 / 조규국, 미정 / 한광인 미진 / 김만준, 미혜 / 박종국 • 10분향소 • 발인: 12월23일 • 장지: 고충군 묘역안장 • 연락처: 250-4410
故 심재천 님(남/75세) 子/子婦: 심형우 / 윤현정, 송우 / 박혜영 女/婦: 심숙영 / 하도현, 은영 / 전희현 喪主: 기영숙 • 12분향소 • 발인: 12월24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12	

그린 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
 광주 광역시 북구 문흥동 876-17